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업무 부담 때문…”

제주경찰청, 어제 실종사건 허위종결 수사 결과 발표
프로파일러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 주된 배경”
기준 2건 외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 추가 확인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업무 부담감 등 이유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했다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태은 수사과장은 이날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A경장의 범행동기에 대해 “A경장이 ‘실종자가 일 반적인 성인이라 안심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쟁여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A경장 조사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는 A경장의 범행동기에 대해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 “A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

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112신고시스템과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해 실종신고처리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A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에 대해 “허위종결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고,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내용을 입력한 것에 대해 “112신고 접수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시 탄로날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 10



정태은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1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서부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발표한 중간결과에서 298건 중 기준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의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코드를 허위로 입력해 해제(삭제)한 사례다.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해당 실종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한달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다.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A경장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실종사건 최종 책임자 책임 명확히 해야”

이 대통령, 1일 국무회의서 경찰 시스템 정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 대해 “사실상 한 명이 밤낮 근무를 하니까 경찰이 수사, 치안 등 일이 엄청 많은데 언제나 인력 부족 얘기를 하지 않나”라면서 “그렇다고 실종 처리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어렵고, 일이 많다 보니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선 경찰관

이 실종 사건을 마음대로 지위버리고 전화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확인했다고 거짓말해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경찰들이야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하겠지만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목숨을 구하는 정부’, ‘목숨을 살리는 정부’란 이름을 일부러 달고 있다”며 실종 사건도 정부가 체계화해 관리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실종 사건을 누가 책임지고 마지막 종결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을 정리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대 입구 사거리 차량 화재… 경찰이 진압

제주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단독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1분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력으로 차량에서 탈출했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가고 있던 경찰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며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시 1400세대 정전… 7명 승강기 갇혀

4시간여 만에 복구 완료

한전 “조류 접촉으로 단선”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이하 한전)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6분쯤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이호2동 등 일대 1470여 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긴급 복구작업과 정전 원인 파악에 나선 한전은 조류가 노형동 일대 고압선을 건드려 끊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한전의 복구작업으로 이날 오전 9시36분쯤 372세대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세대는 전력이 복구됐다. 고압선 교체 등 관련된 복구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은 4시간 여만인 이날 오후 1시35분쯤 이다.

이날 정전으로 승강기에 주민이 갇혔다는 7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중 1명은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6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안내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송치

1일 검찰 이송…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오후 1시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A경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체크셔츠에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다.

A경장은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왜 살아있는 실종자를 사망 처리했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다른 사건도 허위종결했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며 지난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1일 구속 송치된 A경장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30대 여성 장모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레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 8.5cm, 안파고정판: 3cm, 안파밴드: 5.5mm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